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나를 일깨워 주신 부처님 ②

원만심 <본명 채희주·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가 94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항상 건강하셨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부처님 법당에 참배하셨던 어머니는 육신은 외가 많았지만 화장을 고집하셨다. 49재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광명시 소하동 노인들을 모시고 대중공양을 했다. 심우회 회원들의 도움 속에 흥무보살의 회심곡으로 회향을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보시행을 배웠다. 모든 자식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 자랑스런 어머니였다. 법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라 아니라 남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곧 기도라고 강조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노인을 부모로 삼고 불우한 이웃을 형제로 삼는 어머니의 훈훈한 향기가 언제까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믿는다. 지금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다. 어머니는 유난히 바다를 좋아하셨기에 유골도 바다에 뿌렸다. 온 세계 바다를 유람하시며 아미타부처님 나라에 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원한다.

본래 어머니께서는 가족교신자로 집사까지 지내셨다. 나 역시 어린 시절 교회를 나갔다. 그래도 어느 생애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기에 좋은 법을 만나 그토록 부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내가 불교를 알기 전에도 어머니께서는 항상 자비를 실천으로 옮기셨다. 어떻게 그렇게도 남 주기를 좋아했을까. 그러나 당시 나는 너무 지나치다면서 속상했던 적도 많았다. 그러나 내가 불교를 알게 되면서 어머니

의 따뜻한 마음을 되돌아보니 떠나기 전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에 연다. 나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나를 생각해 본다. 그러다가 마음에 변화가 온 적도 많았다. '구경이나 다니며 즐겁게 살지 왜 고생스럽게 봉사야' 하는 갈등도 많았다.

3년 전의 일이다. 어머니 증손자(필

자 오빠의 손자)가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지하층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흙더미에 깔려 온 얼굴이 피부상이로 말그대로 생사가 걸렸던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다. 아예 환자 어머니는 면회도 못할 정도의 비참한 사고였다. 눈은 실명상태였고, 뇌도 확실한 진단이 안 나와 죽지 않으면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초조해했고 말조차 못하는 상태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지나 이웃들은 모두 "중조할머니께서 열심히 부처님에게 기도했으니 살아날 거다"는 말로 위로했다. 그 후 증손자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어 모든 사

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금은 건강한 청년으로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때 병문안을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다. 바로 증손자를 빠른 속도로 쾌유케 한 것은 할머니가 그동안 닦아온 기도와 보시정신이었다는 것을.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 기도에 감응하신 것이다. 나는 그때 부처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즉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라도 봉사의 정신을 활성화시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남 아픈곳 어루만져 주는 것도 기도라며 불우한 노인·이웃 부모형제처럼 여기던 어머니의 훈훈한 향기가 언제나 곁에...

자 오빠의 손자)가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지하층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흙더미에 깔려 온 얼굴이 피부상이로 말그대로 생사가 걸렸던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다. 아예 환자 어머니는 면회도 못할 정도의 비참한 사고였다. 눈은 실명상태였고, 뇌도 확실한 진단이 안 나와 죽지 않으면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초조해했고 말조차 못하는 상태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지나 이웃들은 모두 "중조할머니께서 열심히 부처님에게 기도했으니 살아날 거다"는 말로 위로했다. 그 후 증손자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어 모든 사

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금은 건강한 청년으로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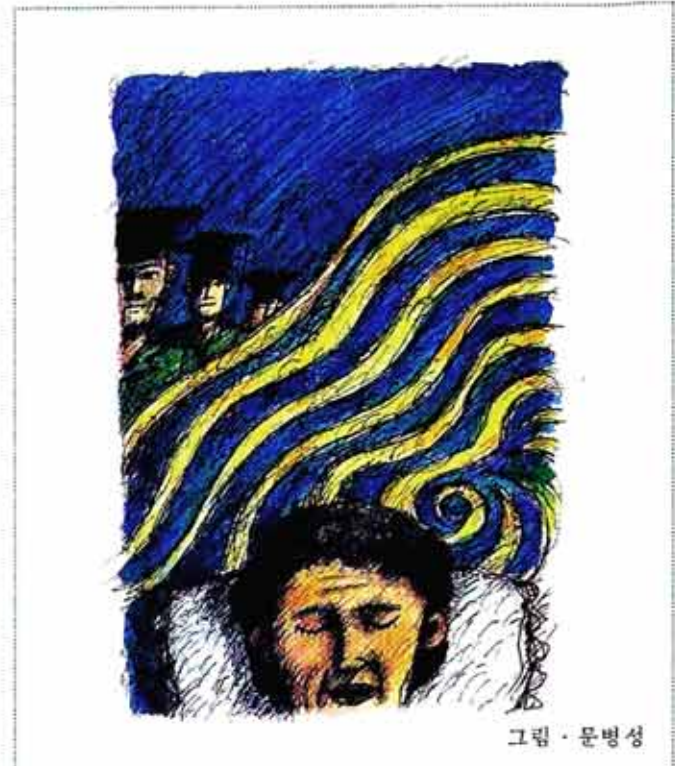
그때 병문안을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다. 바로 증손자를 빠른 속도로 쾌유케 한 것은 할머니가 그동안 닦아온 기도와 보시정신이었다는 것을.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 기도에 감응하신 것이다. 나는 그때 부처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즉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라도 봉사의 정신을 활성화시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울 때와 직접 보았을 때의 감정은 천양지차였다. 병사들이 무더위에 고생 많았다. 위문 겸 의영가 천도를 하기 위해 우리 회원들은 밤새 공양물 준비하며 열기까지 준비하느라 밤 길어가는 줄 모르고 정성껏 준비했다. 나는 그때 감동했다. 그 자극하고 고맙고 아름다운 마음들은 부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선정스님의 열정과 목탁소리를 맞추어 극락왕생 발원을 하고 천도재를 회향하였다.

그날밤 심우회 회장 김명원보살이 꿈을 꾸었다. 꿈에서 학사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새까만 철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아미타부처님 나라로 간다면서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 모자를 들고 손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임종하고 억울해서 떠나지 못한 산봉우리 위에서 영가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꿈이었다고 하였다. 우리가 어

떠한 대가를 기대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병사들은 다 내 자식들이라는 생각으로 정성껏 한 것이다.

어린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왜 심우회는 사람이 많이 죽는데만 가느냐고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 나 역시 과거에는 상가 가기를 두려워했었다.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남들이 아픔을 당해도 구경만 했을 것이다. 늦게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서 이제는 상가에 가서 염불도 두려움없이 한다. 이념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면 불교안이라 말할 수 없다.



그림·문병성

그때 나는 5사단 이종인법사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래서 군포에 배려를 느꼈다. 내 아들들이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라. 군인들이 있기에 나는 부처님 법당에도 마음놓고 찾아갈 수 있으며 자유롭다. 군인들이야말로 수호신장이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다. 함정주 하나로 혼련소부터 포교를 시작한다. 혼련소 수계법회에 참석하게 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다 들어볼 수 없는 아픔이다. 봉사는 자신이 문을 열어 한다. 봉사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며 보시라고 생각하며 재가불자로서 이 각박한 세상에 지비를 펼쳐 맑고 향기로운 포교를 하여 점차 불국정토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불가사의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 어느날 철원 쪽을 지나던 중 군법당이 눈에 띄어 참배하게 되었다. 법당을 나오다 군중병을 만났다. 군중병이 간질히 말하길 비통부대 군법당이 마무리되지 못해 담당법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하여 우리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날따라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이 법당을 수리하기 위해 열거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곳 저곳에서 주위다 놓은 관자문짝 등 그 공경을 보고 우리 일행들은 눈물을 흘렸다. 법을 펼치기 위해 자그마한 법당이라도 마련하겠다고 나선 군불자들에게 고맙고 감사했다. (계속)



◇(서유기)에 사천왕의 캐릭터를 결합시킨 디지털 애니메이션 '찰인 사천왕'. 왼쪽부터 찰인 광목천왕, 찰인 지국천왕, 찰인 다문천왕, 찰인 중장천왕의 모습.

“로봇 사천왕 지구 구한다”

불교 애니메이션 '찰인 사천왕' 2월13일 개봉 디지털법 최초 제작... 화려한 영상 볼거리

사찰을 지키는 사천왕이 로봇으로 변신해 지구의 위기를 구한다.

100%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된 디지털 애니메이션 '찰인 사천왕'. B29엔터프라이즈(대표 김혁)에서 제작된 이 만화영화는 <서유기>에 사대천왕의 캐릭터를 결합시킨 공상과학물.

'찰인...'은 과학 기술의 진보로 기아와 질병 등 일반적인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 정신적인 혼돈속에 빠져 있는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상징법사가 세계 방위점에 봉인해 둔 여덟 요괴들이 봉인을 풀고 지구 곳곳을 파괴하면서 부터 시작된다.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상징법사의 법의(法衣)에 그려진 그림에서 태어난 4기의 거대 변신 로봇.

이들은 동쪽을 지키며 인간을 고투보살피고 북쪽을 수호하는 지국천왕, 좌인에게 벌을 내리 잘못을 누워치게 하고 도심(道心)을 일으키게 하는 서방의 수호신 광목천왕, 남쪽을 지키며 만물이 태어날 수 있는 덕을 베푸는 중장천왕, 북쪽을 지키며 부처님의 도량을 살피고 불법을 듣는 다문천왕 등 사천왕의 각 특징을 지니고 있는 로봇들. 처음에는 요괴들의 계략에 빠져 로봇 조종사들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위기에 봉착하지만 지혜롭게 힘을 합쳐 수렁에 빠진 지구

와 태양계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이 영화에서 박진감 넘치는 오트바이 경주 장면, 찰인사천왕과 요괴의 결투장면 등은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만끽할 수 있어 첨단 영상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영화는 디지털과 한 장의 셀을 합성한 신기술인 디지털(Digit-Cell) 방식과 첨단기법인 HDVS 프린터 방식을 도입해 관객들에게 생생한 화면을 선사해 준다.

기획자인 김혁감독이 '2.5차원 애니메이션' '디지털'이라 부르듯 이 영화는 디지털의 금속성을 제거하고 평면 만화영화의 따뜻한 느낌을 살린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 15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찰인사천왕'의 특징은 컴퓨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역동성과 만화적 영감을 다양하게 구사한 것. 이외에도 이 작품에는 록과 댄스 리듬을 합성한 생동감 있는 음악 등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재미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찰인사천왕'은 1월말 시사회를 거쳐 2월13일 개봉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인력대부 찰인사천왕 제작 김혁 감독

어릴때 본 사천왕서 착안



“사천왕은 불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점에서 관심이 있었어요. 어릴때 할머니를 따라 사찰에서 본 사천왕을 모델로 '찰인 사천왕'을 만들었습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찰인 사천왕'을 제작한 B29엔터테인먼트 김혁감독(38). 불자인 김감독이 '찰인 사천왕'을 애니메이션 소재로 삼은 또다른 이유는 서양의 희랍신화를 주로 다룬 미국과 일본 만화영화 시장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새롭게 흥미로운 우리 불교 문화를 만화 영화로 가깝게 보여주자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96년 만화영화 '아마게론'에 이어 두 번째 작품인 '찰인 사천왕'이 100%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감독은 또 "애니메이션이 발달된 미국, 일본 등에서도 디지털방식은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제작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동국대 연극영화과 출신인 김감독은 앞으로 성인 애니메이션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어시어운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301-선(續)

참선요지(參禪要旨)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상(大鳥)스님 옮김. 66면형 278쪽 / 값5,500원. 어시어운 펴냄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소멸해 버린 자리(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것인가?

스님의 일생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법(法)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째로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안일과 나태, 그리고 온갖 야짐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통렬한 절타이기도 하다. 결국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 자신의 이러한 치열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결정된 화답, 요긴한 말씀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홍근이의 말 중에서)

허운화상

허운 화상(1840~1890)은 1840년 중국 복건 천주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처음 관음보살의 일대기 등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19세 때 출가, 고산 용선사의 묘연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는 모든 소임을 놓고 3년간 일념으로 관조와 염불을 하였으며 32세에는 천대산 용현암 승경 노화상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불법을 구했으며, 잦은 병고와 역난에도 굴하지 않고 계율을 엄수하고 근교정진한 끝에, 종문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단절되 다시한 5중 가봉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하에서도 승도를 수호하고 사찰, 불당의 파괴를 막으며 대소수심개소의 가람을 복원하는 헌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를 주고 불문에 귀의시켰다. 그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계한 제자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어시어운

어시어운 출판은 바, 한 지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였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홍포구 권자동 110-33 전화: (02)737-0665 팩스: (02)737-0666